

*본 도서는 15세 이용가입니다.

평범한 것 같지만, 위태로운 날들의 연속이었다. 공부와 시험, 또 공부와 시험. 그리고 모의재판 준비로 정신없는 와중에 걸려 온 한 통의 전화. 낙원은 그대로 연수원을 빠져나와 공항으로 향했다.

- 너 몰랐어? 오늘 이태경 출국이잖아. 아까 집에서 출발한다고 통화했어. 아무리 헤어졌다지만, 너희 진짜 이대로 끝내도 돼?

입 안이 바싹 말라왔다. 처음엔 붙잡을 이유가 떠오르지 않았고, 그다음엔 그래도 되는 것일까 두려웠다. 내가 어떻게, 내가 뭐라고. 그리고 그다음에는 몸이 움직이고 있었다. 그런데도 자꾸만 이게 맞는 건지 의구심이 들었다.

헤어질 때, 그가 마지막으로 했던 말들이 자꾸만 발목을 붙잡아서.

“매달리지 마. 네가 그러면, 나 아무것도 못 해.”

우리의 끝이 그랬는데.

여전히 믿어지지 않아 매일 아침 휴대폰을 확인했다. 아침 인사를 주고받던 메시지가 없다는 사실에 미련을 떨고, 너와 함께 걸었던 골목, 함께 먹은 음식, 함께했던 약속들을 추억하며 매일 밤을 울었다.

헤어짐은 그런 것이다.

그래, 이별은 그런 것이다.

그런 헤어짐을 우리가 했고.

질은 그리움을 꾸역꾸역 삼켜 내며 버텨 왔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었다. 그가 떠난다는 소식을 들은 후로 자꾸만 눈물은 차오르고, 몸이 뻗뻗하게 굳어 갔다.

“아가씨, 저기 다 왔는데...”

내내 울던 낙원이 신경 쓰였는지 택시 기사가 말끝을 흐렸다. 지갑 안에서 아무렇게나 꺼낸 지폐를 기사에게 쥐여 주고 낙원은 무작정 앞을 향해 내달렸다.

붙잡을 생각은 없다. 네게 내가 얼마나 끔찍한 존재인지도 알고 있다.

무릎에 손을 얹고 숨을 몰아쉬던 낙원이 문득 고개를 돌릴 때였다.

이태경.

그가 보였다.

믿어지지 않는 꿈, 신기루. 그녀는 마치 그것을 만난 기분으로 앞을 향해 걸었다.

“태경아.”

출국장 대기 줄에 선 태경이 점점 멀어지고 있었다. 그럴수록 그녀는 빠르게 걸었다. 지금 이 순간만큼은 망설임도 두려움도 없었다. 뒷모습이라도 좋다 생각했던 마음은 너를 붙잡고 싶은 욕심으로 변해 갔다.

보면 웃어 줄까. 혹시 그래 주지는 않을까. 네가 잘못된 건 아무것도 없다며, 그러니 둘이 도망가자고 말해 주진 않을까. 그렇다면 기꺼이 그녀는 두 팔 벌려 그에게 안길 작정이었다. 우뚝 선 네게 갈 수 있는 기회는, 지금이 마지막이니까.

“이태경.”

낮은 그녀의 목소리를 들었을까. 여권을 손에 든 그가 살짝 돌아보는 순간, 곧게 걸던 그녀는 다급하게 등을 돌렸다.

안돼. 그냥 보내는 게 맞아.

숫아오른 용기는 순식간에 꺼져 들었고, 증오해 마지않는 눈빛으로 저를 볼 그의 눈동자가 두려워졌다. 비겁했고, 또한 나약했다. 왔다 갔다, 흔들리던 마음은 결국 널 이대로 보내고야 만다.

마지막 뒷모습,

겨우 그런 것에 만족하면서.

한 걸음을 내딛고, 또 한 걸음을 내딛다가 주저앉았다. 귀를 틀어막고 공항에서 들려오는 모든 소리를 차단했다. 눈을 감고 기다렸다. 그가 출국장 너머, 그녀가 어찌지도 못하는 곳으로 얼른 사라져 주기를. 그래서 가련한 희망조차 갖지 못하기를.

“괜찮으십니까? 손님, 손님?”

공항 한복판에 주저앉은 모습은 눈에 뭘 수밖에 없었다. 곁으로 공항 직원이 다가와 물었다. 어디 불편하시냐고, 일행이 있냐고 묻는 질문에도 낙원은 들리지 않는 듯 입을 다물었다. 태경은 갔을까. 머릿속은 온통 그 생각뿐이었다.

그런데.

“제가 아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귀를 틀어막아도, 또렷하게 들리는 목소리가 있었다. 낙원은 흠칫 몸을 떨고선 천천히 귀에서 손을 뗐다. 공항 직원과 몇 마디를 나눈 태경이 옆으로 다가와 섰다.

“일어나.”

그리고 차가운 목소리.

이런 네가, 나는 아직 낯설고 무서운데.

“일어나, 윤낙원.”

그는 마치 처음부터 그래 왔던 듯, 서늘히 말했다. 눈에는 아무런 감정도, 동요도, 또 흔들림도 없었다.

물러서지 않는 남자와 주저앉아 버티는 여자. 주변의 시선을 끌기에 충분했다. 낙원은 느리게 몸을 일으키고선, 그를 올려다봤다. 소름 끼치도록 매끄러운 얼굴에선 감정이 사라져 있었다.

아, 무엇을 상상했는지. 이 남자의 세상에, 더는 내가 없는데.

“오해하지 마.”

“그냥, 오늘 간다고 해서. 인사는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왔어.”

자꾸만 목이 잠겼지만, 그녀는 차분하게 말을 이었다. 날카롭게 닿는 시선은 낯설었지만 괜찮았다. 대답을 기대한 것도 아니니까. 낙원은 땀이 흥건하게 배어 나오는 손등을 바지에 아무렇게나 비비고선, 한 걸음 물러섰다.

“미안해. 가 볼게.”

“윤낙원.”

건강히, 잘 다녀오라는 말 한마디 붙이지 못한 채 멀어질 때였다. 그의 부름에 낙원은 다시 고개를 들어 그를 응시했다. 무덤덤하니 낙원을 내려다보던 태경은 가방에서 티켓 하나를 꺼내 내밀었다.

“네 거야. 직접 찢어.”

차게 얼어붙은 눈에 금방 눈시울이 붉어졌다. 무감정한 목소리가 낯설었지만, 낙원은 손을 뻗어 티켓을 건네받았다.

“소감이 어때.”

석상처럼 굳어 움직이지 못하는데, 그의 소리만은 선명하게 들려왔다. 가라앉은 시선을 든 낙원이 그를 올려다봤다.

“싫었잖아. 나랑 유학 가는 거.”

“.....”

“생각해 보니까 넌 늘 그랬어. 유학 같이 가자고 늘 치렀던 건 나였지, 어른들한테 언제 들킬까 넌 계속 노심초사만 했고.”

당황한 얼굴을 애써 지우지도 못했는데, 그는 나직하게 말을 이었다. 그의 한마디, 한마디가 그녀의 심장을 움켜쥐고 뒤흔들었다.

아니라고. 나도 가고 싶었다고. 하지만 모두가 싫어할 걸 아니까, 그게 두려웠을 뿐이라고. 그녀는 해명하고 싶었다.

“태경아.”

“쓸데없었지.”

“.....”

“어차피 이렇게 끝날 거.”

그런데 그는 이제 해명조차 들을 생각이 없었다. 나와 헤어졌으니까. 이젠 세상에서 내가 제일 미울 테니까. 착각하고 싶었다. 우리는 상황에 떠밀리는 바람에 헤어지게 된 것이라고. 어쩔 수 없이, 좋아하지만 할 수 없이 헤어진 거라고. 하지만 이제 그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너는 이제 내 아버지를 증오할 테고, 결국 그 증오는 나의 것이다. 난 그렇게 네게 미움받다가 결국 지쳐 가겠지.

끝. 지금 우리의 관계. 더 나아갈 수도 없고, 끊어 내야만 하는.

그리고 지금 이게 마지막이라면.

“고마웠어.”

어렵게 벌은 한마디에 태경의 눈썹이 날카롭게 들렸다.

“그리고 미안해.”

“뭐가.”

태경이 곤장 되물었다. 하지만 낙원의 연한 입술은 쉽게 열리지 못했다. 태경이 낮은 조소를 품었다.

“뻔뻔하다고 해야 할지, 미련이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네.”

차분하게 날아온 비난에 심장이 쿵 찢린 것처럼 아파 왔다. 할퀴 것처럼 바짝 날을 세운 분위기가 그의 것이 맞을까, 이제는 두렵기까지 했다.

“내가 그냥 다 미안해.”

희미하게 떨리는 입술은 결국 다시 사과를 토했다. 하, 소리 나게 웃은 태경은 벌써 눈가가 붉어지려는 그녀를 차갑게 응시했다.

“가.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

좋아했던 사람에게 듣는 이런 이별이란, 너무나 가혹했다. 그녀는 곤장 후회했다. 이곳에 오는 게 아니었다. 마지막 뒷모습조차 그녀에게는 사치였다.

“혹시나 억지로라도 보게 되면.”

“.....”

“그냥 다 잊은 것처럼 굴어. 나도 그렇게 할 테니까.”

너는 그게 되나. 어떻게 다 잊을 수 있나. 또 얼마나 혼자 자책하려고, 얼마나 혼자 힘들어하려고.

그럴 수 없다. 너 대신 내가 힘들면 되고, 너는 나만 미워하면 그만이다.

그녀는 서투른 행동으로 그의 옷소매 끝을 붙잡았다. 마침 뒤돌아서려던 그는 눈가가 붉게 젖어 든 그녀를 무심한 눈길로 내려다봤다.

“안 행복해질게.”

감정 없는 상대에게 하는 호소란, 덧없기 그지없다. 하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다.

“조금이라도 행복해지려고 하면, 거기서 멈출게.”

“.....”

“너희 아버지 그렇게 되신 거, 우리 아빠 때문 맞아. 그러니까 절대 행복해지지 않을게.”

겨우 내 행복 따위를 바쳐 봤자 달라지는 건 없겠지만, 그녀는 다짐했다.

“약속해. 그러니까 넌 계속 나만 미워해.”

절대, 너 자신은 미워하지 말고.

그녀는 조용히 다짐했다. 무슨 짓이든 할 거라고. 내가 날 미워할 수 있게. 계속 그렇게 뻘뻘해져 보겠다고. 끝의 끝까지 넌, 나만 미워해야 하니까.

온 인생이 불행해진다고 해도 상관없었다. 그만 괜찮을 수 있다면.

낙원은 그 어느 때보다 긴장된 마음으로 대답을 기다렸다. 그럴 필요가 없는, 그녀 혼자만의 약속인데도 그랬다. 심장은 거칠게 뛰다가 느린 속도를 이어 갔고 입 안이 자꾸만 말라 갔다.

그가 어떤 말을 할까. 머릿속이 불안한 균열을 만들어 냈다.

“그러시든지.”

그녀의 불안을 비웃듯, 짧게 대꾸한 태경은 마치 더러운 오물이 묻은 사람처럼 그녀의 손을 차갑게 털어 냈다. 그리고 곧장 출국장을 향해 걸었다. 뒤도 한번 돌아보지 않고. 허공으로 떨어진 그녀의 손끝이 파르르 떨렸다.

명백한 거절과 무시. 증오와 경멸. 그는 이제 그런 남자가 됐다. 제 행복과 미래 따위, 관심 없는 남자.

그래, 이별은 그런 것이다.

윤낙원, 너만 몰랐을 뿐.

공항을 빠져나갔을 땐, 컴컴한 어둠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 길 끝이 얼마나 어두울지, 그녀는 찢지 못한 티켓을 손에 쥔 채 걸었다.

몇 해가 지나, 그는 유학에서 돌아왔다.

그리고 그들은 여전히 서로가 존재하지 않는, 흐린 세상을 살아냈다.